

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 육성방안

Upbringing Way of Cooperative Company on Food Industry

박진서 | (주)정앤서컨설팅

Park JinSeo | JEONGANSWER Consulting CO., Ltd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EU,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 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축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배경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둬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써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

장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 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서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첫째,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와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활운동·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의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

운 상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식품분야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의

2012년 벽두 한국의 식품분야 핫이슈는 쇠고기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 소값 폭락으로 인한 축산농민들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산·가공·유통을 함께하는 패키기업의 육성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패키를 유럽에서는 협동조합기업이라고 부른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가 연계하는 프랑스의 농식품직거래 시민단체 AMAP(Association Pour maintenir l'agriculture paysans)도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기업은 정책지원 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농식품생산자, 농어촌기업인들의 조직화에 방점이 있는 새로운 농어업경영체인 것이다.

물론 기존의 농·수·축협이 있다고 하나 이들은 농수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농식품가공업자들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유통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공생이 부족하고 PB 상품을 강화하는 등 중소농식품기업의 경영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화와 유통구조 개선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유럽의 농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한국형 협동조합기업이 육성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농식품산업이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Table 1).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사례

네덜란드 코노치즈제조회사(CONO Kaass-maker)는 510개 농장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형식의 기업으로 Fevoland, Friesland, Drenthe 지역의 5백여 명의 생산자가 코노치즈에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고 있고, 베스트빔스터에 있는 치즈공장에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Fig. 1).

코노치즈는 생산조합원이 출자한 회사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회원 자격을 가진 생산자조합원이 회사에 재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을 통해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등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코노치즈는 수작업과 장인정신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로 고유의 고급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어매니티인 지역적 특성으로 목초지가 해수면 아래 청정지역의 목초라는 것을 브랜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코노치즈 제조회사 사례의 벤치마킹 시사점은 한국의 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 육성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있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정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강화하는데, 최고급 우유를 사용하

Table 1. The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손학규의원실 보도자료, 2012)

구분	주요내용
법인격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적용대상	농협·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 대상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
의결 및 선거권	출자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주의'
설립등록	시도지사에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사업, 소액대출 등 협동조합과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 가능, 기재부장관에 신고
공직선거 관여 금지	금지 의무화
시행	2012.12.1
기대효과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으로 확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의 협력사업 확대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과 이익극대화가 아닌 조합원 편익 우선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 견제, 경쟁의 촉진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국민경제 발전 기여

여 수제치즈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즌별 국가별로 주력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고객의 입맛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시장조사도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며 셋째, 식품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자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넷째, 다른 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지역 어매니티를 활용한 마케팅은 윤리적인 소비와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널리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스토리텔링과의 결합을 요구받고 있다.

여섯째,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즈제조 방식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농산업품목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한다.

프랑스의 인비보(INVIVO)는 농업생산자조직 중 프랑스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기업연합으로 279개의 협동조합기업이 모여 만들었으며 일반 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Fig. 2).

인비보의 기본목적은 식량자원의 확보와 분배를 위해 기술적, 제품적, 도구적인 모든 기술서비스를 회원인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농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들 간의 연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주로하고 있다.

연간 총매출액은 51억 유로(한화 약 8.168억 원)이며, 279개의 협동조합기업 중 23명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위원회를 두고 활동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12개의 연구소와 6천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으며 최고위원은 회원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Fig. 1. Cono company's cheese shop (소통과 협력으로 도약하는 농산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인비보의 벤치마킹 시사점은 첫째, 농업관련 생산자 조직의 연합으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재 등 농업관련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시켜 줌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농 상생을 선도하고 있으며 넷째,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다양한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 육성의 기대효과

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의 육성에서 중요한 방향

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정책지원이 종료된 사업단들의 협동조합기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협동조합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의 모델로는 크게 코노치즈 제조회사와 같은 생산·가공·유통 통합형, 지역단위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유통형, 식자재공동생산·외식업소경영·공동마케팅을 함께하는 외식 경영형, 생산자·소비자연계 농식품직거래 유통형, 지역단위 농식품기업과 농장 등이 농식품생산체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체협프로그램 운영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분야 정책지원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매년 2015년까지 30개소씩 200여 개를 육성 지원하고 있고, 사업의 대부분이 식품을 테마로 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이 단절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신청조



Fig. 2. French Producers Cooperative Union INVIVO group leader (소통과 협력으로 도약하는 농산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건에 참여하는 농가 및 기업들이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여 신청한다면 정책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농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데 향토 산업육성사업 등 정책사업 종료 후 사업지속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FTA 확산에 대비한 소규모 농어촌기업의 유통조직화·규모화의 대안확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100개씩 500개의 경쟁력 있는 농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 설립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책지원의 내용으로 협동조합기업 설립 및 운영체제 구축지원, 협동조합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협동조합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협동조합 기업활성화 컨설팅, 협동조합기업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분야 협동조합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면 프랑스의 대표적 협동조합 기업연합인 인비보(INVIVO)사례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인 협동조합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협동조합기업연합의 출범 및 육성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소통과 협력으로 도약하는 농산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2. 이금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12
3.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손학규의원실 보도자료, 2012

박진서 농학박사

소 속 : (주)정앤서컨설팅 기획이사

전문분야 : 농식품제품화 및 유통마케팅전략수립

E-mail : happyjs@naver.com

T E L : 02-2625-0714